

절망과 불안에서 행복과 평화로 나아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김 oo(F/47) · 종교: 천주교
- 직업: 주부
- 진단명: 직장암 및 간전이(Rectal cancer & liver metastasis)
- 입원 전 경과
 - 2010년 2월 직장암 진단
 - 2010년 2월~9월 항암요법, 방사선 요법, 수술치료받음
 - 2010년 9월 이후 통증조절 받던 중 통증 지속되어 입원함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입원
 - 1차 2011년 9월 26일 ~ 10월 9일
 - 2차 2011년 11월 17일 ~ 12월 14일

- 선종: 2011년 12월 25일 (춘천 연고지 병원에서)

<환자상태- 첫 입원 시>

- 활동상태/의식수준: PPS 60-70%, 스스로 일상생활과 걸어서 병동 내 산책 가능하며, 의식수준은 정상(명료)으로 본인 의사표현 정확함.
- 영양/피부상태: 죽 1/2그릇, 후식으로 과일섭취 가능하며 마른상태로 뼈 돌출부위 있으나 욕창은 없음
- 배설 및 배뇨: 1회 200cc/ 1일 5회 정도로 배뇨, 3일에 1회 정도로 브라운색상의 배변함
- 활력징후: 혈압 122/90, 맥박 96회/분, 호흡 12회/분, 체온 36.6
- 주증상: 복부통증(기본:4-6점, 돌발성 7-10점)

진료 부분

<병력>

- 2010년 1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직장암 진단
- 2010년 1월-3월 항암요법 6회, 방사선요법 28회
- 2010년 5월 수술 후 간전이에 대한 고주파 치료
- 2010년 6월-9월 방사선 요법
- 2010년 9월 이후 홍천아산병원에서 통증조절 하였으나 통증 지속됨

- 측다리 비함요 부종, 복통(기본통증: 4-6점, 돌발성 통증 7-10점), 간비대/종괴촉지
- 두 번째 입원: 입원 일주일 전부터 음식이 식도에 걸리는 느낌 있고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 통증

<신체검진>

- 첫 번째 입원: 기운없음/피로감, 식욕부진, 양

<혈액검사>

- 첫 번째 입원: 전해질 감소 외 이상소견 없었음
- 두 번째 입원: 빈혈, 염증수치증가, 알부민 감소, 전해질 장애 지속

<영상검사 - 복부, 흉부 CT>

- 좌측 경부림프절, 양측 폐, 간전이
- 다발성 폐쇄: 대장, 위 우측흉수

<경과>

- 첫 번째 입원: 듀로제직 패취, 마약성 진통제(경구용)로 통증조절되어 퇴원함

- 두 번째 입원: 질병상태(다발성폐쇄, 종괴 압박 등)로 시술 및 수술이 불가능함을 설명함
- 복부통증, 입마름, 연하곤란, 불안증상 조절-미약함
- 간헐적 섬망 증세 발생
- 흉수배액위해 배액관 삽입
- 다학제팀 접근하였으며 연고지관계로 퇴원함

간호 부분

<간호문제 1. 절망과 불가능한 희망>

사정: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할거예요 완쾌가 된 사람이 꽤 있다고 해요. 살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거예요.” “왜 계속 열이 나는거죠? 그럼 퇴원도 못하나요? 대체요법 하려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음식을 먹으면 내려가지를 않는걸요.. 그럼, 스텐트는 못하겠네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천국으로 가겠지? 그렇지?”
 “내가 죽으면 애들은 괜찮아... 그라시아(딸) ... 아아... 나의 그라시아는...”

계획 및 수행:

- 대체요법에 대해 팀 구성원과 가족회의를 시행함
-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대안과 방법을 교육함

평가:

- “이렇게 있다가 배가 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프면 약을 맞을래. 그러면 돼.”
- “우리 그라시아는 어른스러워 다 알아야.”

<간호문제 2. 불안과 두려움>

사정:

“또 아파질 수 있나요? 그럼 여기 또 입원해야 해

요?” “약이 강해서 위험해 지는거 아냐? 아냐... 안 맞을래요.” “어쩔 때는 아픈 것 보다는 좀 자는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수면제를 먹고 자면 다시는 눈을 못 뜰까봐... 그게 무서워요..”
 “나 두고 가려고 했지? 가지마... 내 옆에 있어줘...”

계획 및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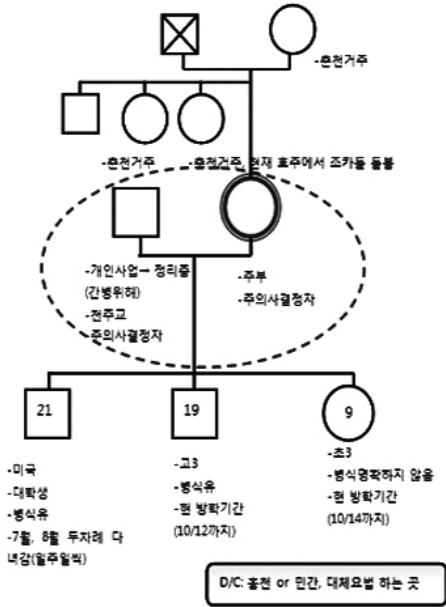
- 두려움 호소에 대해 경청하고, 성서쓰기, 기도하기 격려
- 딸에게 편지쓰기를 격려함
- 잠이 들 때 까지 손을 잡아주고 잠에서 깰 때에는 다른 병실에 다녀온 후 15분 이내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킴

평가:

-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할게” 힘겹게 웃으면서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연제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함
- 통증에 대한 즉각적 대처에 대해 스스로 조절되고 있음을 표현함.

사회복지 부분

<가계도>



- 팀원과 함께 공유, 지지하며 신뢰형성
- 심적 부담 완화 - 죽음 준비

<자녀의 준비>

문제사정:

- 정확한 질병인지 부족
- 환자가 자녀들과의 만남 거부
- 호주의 자녀들과 마무리

개입:

- 자녀들과의 적절한 시간 계획 필요성 전달
- 환자 가족 간 편지쓰기

결과:

- 자녀들 방학기간 이용하여 귀국 후 함께 시간 보냄
- 아들 - 환자와 대화를 통한 나눔 / 딸 - 환자에게 카드쓰기

<남편의 준비>

문제사정:

- 첫 번째 입원 - 민간요법에 대한 기대, 환자에게 상태통보 거부(남편중심 사고로 인한 고통 증가)
- 두 번째 입원 - 점차 악화되는 상황을 남편만 인지(환자는 의심과 예측만)

개입:

- 남편의 고통을 공감 하고 환기 제공
- 민간요법에 대한 팀원 간 정보공유 및 협의
- 환자를 포함한 죽음인지 필요성 전달
- 충분한 정보 제공

결과:

- 질병위험 상황도 인지하되 희망도 유지
- 상태 통보 필요성도 인지하나 갈등 계속됨 →

<장례 준비>

문제사정:

- 환자상태가 악화되면서 물어볼 곳이 없다함, 구체적 계획 부재

개입:

- 사전 준비 필요성 인지, 장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결과:

- 초기 치료 불가시 호주로 갈 계획이었음.
- 최종 시누이집 근처 장례식장 - 선산에 매장 결정

원목(영적) 부분

○○○는 47세로 직장암 말기 환자로 2011년도 11월 중순에 입원하여 한달 정도 호스피스 간호를 받다가 12월말에 춘천으로 전원가신 분이다.

지금은 자리도 잘 잡히고 생활을 할 만하니 몸이 아프게 되었다고 하면서 호주에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 보았으나 언어와 풍습이 잘 맞지 않아 한국에서 진료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곳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였다.

○○○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나 진통제, 수면제를 먹으면 깨어나지 못할까 봐 약 드시는 것을 제한 한다고 하셨다. ○○○는 언제나 남편 손을 꼭 잡고 저와 함께 아침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내가 방문을 할 때 마다 손을 내밀어 잡아 달라고 하였고, 방에서 나오면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내 손을 놓치 않아 30분 동안 붙잡혀 있곤 했다. ○○○는 수녀인 나를 보면 항상 좋아하면서 끌어 안았다. “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어서 만나 보고 시간이 있으면 또 들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올려면 “다시 또 와 수녀님”하면 나는 “예”하고 말한다.

어느날 방문을 했는데 “나는 걱정이 있거든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을 누가 키울까? 두 남자 아이와 남편은 걱정이 되지 않는데, 제일 걱정은 막내둥이 딸이 걱정이거든. 꼭 얘기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자녀이니 하느님께 맡기고 ○○○의 남편이 계시니 아이들을 잘 보살필거예요.” 그는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아유 참 그러네요”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보인다. 조금 있으면 자녀들이 겨울방학이라 온다고 하셨다. 큰아들은 시험 끝나고 오고, 둘째아들과 막내딸은 먼저 온다고 말씀 하시면서 기다리는 것 같았다.

다음날 방문을 하였더니 큰소리로 울면서 어머니를 불러달라고 남편에게 졸라댔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빨리 불러와”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지른다. 어른이지만 순진한 아이와 같아 남편은 그를 달래듯 “장모님을 빨리 오시게 하든지 우리가 가든지 해야 하겠다”고 손등을 비벼주며 말씀하였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픈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는 들었다.

며칠 후 보고픈 막내딸이 왔다. 환자의 막내딸인 그라시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가 아파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 “예” “어머니는 고통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 하고 있다”고 내가 말하니 그라시아는 말을 이어 받아 대답하였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대해 배웠어요. 천국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다. 천국은 하느님을 모시고 완전한 복을 끝없이 누리는 곳이다. 한국에 오니 좋지?” 하고 물으니, 어머니가 제일보고 싶었다고 하였다. 오후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픈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지고 답답하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그렇지.” 앞으로 둘째아들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였다. 꼭 좋은 의사가 되라고 격려해 주었다.

호주에 간 후 가족들은 성당에 열심히 다녔다고 하였다. 신자들은 백명 정도 되지만 모임이 자주 있었고, ○○○부부가 일을 도맡아서 봉사를 하였다고 언니가 말해 주었다.

환자의 남편 루카는 쉴 시간이 없다. “많이 힘드시지요?” 루카 형제님은 한결 같은 표정과 말로 부인이 얘기 같아요. 얼굴에는 은유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 하곤 하였다. 언제나 아픈 부인 손을 잡아주고 다리와 팔을 주물러주고 여러가지 심부름을 시켜도 거절 한번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호해주는 사랑이 많으신 보호자를 처음 만나 보았다.

자원봉사 부분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아름답고, 스마트했던 환우 분이 마흔 여덟의 나이로 돌아 가셨습니다.

봉사일인 9월 27일에 처음 봉사자 팀장으로부터 여자 환우 분이 팀선정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실에 가보니 환우 분은 힘없이 옆으로 누워 계셨고 남편 분 혼자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조용하신 분들이라 말 건네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가 도와 드릴 일이 없나요?” 하고 말을 건네니 무엇을 청해야 할 지 모르시고 말이 없으셨다. 발을 만져보니 차가워서 발 마사지를 권하였습니다. 몸을 바로 눕기 힘들어하시어 옆으로 누워 발마사지를 받으셨고, 기도드리고 성가를 부르니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했던 어둡고 우울한 표정이 바뀌어 힘이 나는 듯 밝은 표정이 되셨습니다. 귀찮다며 사양하시던 머리카락도 자르겠다 하셨고, 어린시절 언니들과 함께 집에서 머리를 자르고 난 후, 잘못 잘랐다고 울며 “재 좀 봐! 재 운다”고 두 언니가 벽 뒤에 숨어서 놀리던 옛 일도 들려주면서 그 때가 그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활 성가 “내 발을 씻기신 예수”, “엠마누엘”을 듣기 좋아하시어 불러드리면 즐거워하고 다정다감하게 침대 옆에 앉아서 두 손을 꼭 잡고 있기를 좋아하고 기도 후에 조용하고 정숙한 표정으로 성호를 그었습니다. 환우 분은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셨습니다. 어린 딸을 둔 환우 분은 임종이 다가옴을 어찌면 알았음에도 어린 딸을 위해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강한 애착을 보이셨습니다.

외관상으로도 혼자 걷고, 말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였고,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그렇게 오래 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의료진에서는 활동할

수 있고 정신이 온전한 이때에 삶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지만, 남편 분은 스마트한 사람이었고, 알아서 할 것이라며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8일 재입원 하였다. 침상에 앉아 계시기에 노크하였더니 반가이 손짓하며 침대 옆 의자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7월에 귀국 이후로 호주에 못 갔다고, 검사 몇가지 받고 호주로 다녀오고 싶다고, 호주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헤은이의 “당신은 모르실거야” 곡은 신부님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가” 라고 했다며 함께 부르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려 했습니다.

11월 말경에는 식도 폐색으로 식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식사 못하는 힘든 중에도 감사 표현을 잘 해주었고, 호주에서 아이들이 오면 피아노 치며 “사랑”을 함께 부르고 싶다고 만남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와서 함께 산책하며 간병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보고 싶다” 하면서도 노령의 엄마가 염려되어 아픈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월 13일 통증이 없어 편안하다 하셨고, 의식도 맑아 보였지만 식사를 못해 수척해 진 모습으로 힘없이 눈 감고 계시다가 작은 기적에도 눈을 뜨곤 했습니다. 배에 큰 덩어리가 잡힌다고 부어오른 가슴을 보여주고 걱정스러운 듯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자라고 하지 말라”며 예민해 있었지만, 주모송 기도를 해드리니 함께 기도하다 편안히 금방 잠드셨습니다.

12월 14일 퇴원하여 춘천 요양병원으로 가셨고,

28일 눈 내리는 저녁거리에서 남편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환우 분이 25일 돌아가셔서 28일 춘천 신산에 모셨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전화를 하여 부인에게 참 잘해주셨다는 말과 함께 신앙심 깊은 가족이라 슬픔을 잘 극복하리라 믿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병원에서 주관하는 병동미사와 사별가족 지지모임을 안내

해드리니 남편은 고맷다며 12월 31일 호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아내를 위해 말없이 정성껏 보살피던 다정다감한 남편, 가고 싶어 하던 호주의 집을 남겨두고, 신앙심 깊고, 상냥하고, 착한 환우 분은 하느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지금쯤 환우 분은 육신의 고통 없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